

한강시민공원에서의 청소년사업에 관한 연구

정 일 교*

- I. 서론
- II. 사업개요
- III. 이용청소년의 특성
- IV. 한강시민공원의 청소년 이용실태
- V. 이용청소년의 욕구
- VI. 결론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강시민공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도 휴식공간과 신체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장소, 지역사회 단위의 모임, 행사 등을 치룰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시민 휴식처로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 그리고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보호 및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놀이문화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잠실·독섬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을 운영 지원하여 왔다. 1992년부터 청소년선도사업은 독섬지구를 제외한 여의도·잠실지구 청소년사업센터를 청소년 전용광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업의 운영을 확대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도사업의 운영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전용광장은 주중에는 상담사업, 스포츠기구 무료 대여, 주말에는 주말놀이마당,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학생청소년 뿐만 아니라 근로청소년과 부랑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다.

이같은 청소년전용광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청소년 욕구조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를 통해서 이용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질문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헌, 특히 본 전용광장에서 그간 2회 조사한 자료와 기록카드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계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문지조사는 1992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잠실지구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634부였으나 질문에 충실하지 못한 질문지는 제외하고 모두 624부를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행하였다.

II. 사업개요

여의도·잠실지구 청소년전용광장은 서울시청 청소년과에서 한국복지정책연구 청소년사업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여의도지구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청소년사업부, 잠실지구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청소년들의 선도와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로 5년째가 되고 있다.

청소년전용광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생산적인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강시민공원 이용청소년에 대한 현장지도와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시민공원내의 우범화를 예방하고, 시민공원내의

놀이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 레크레이션 지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개발하고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 놀이문화의 모델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전용광장의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 주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등 행사

공연등 행사는 여의도·잠실지구에서 실시되며 주말놀이마당, 레크레이션, 회원취미교실 운영, 민속놀이, 과제수행과라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1) 상담은 전문상담요원이 청소년전용광장 여의도·잠실지구에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진학, 진로, 가족, 이성문제 등 청소년들의 고민문제이며 적성검사 또는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2) 놀이마당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집 발간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청소년사업부에서 이용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관련 단체에 그 모델을 보급 확산할 목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1)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은 여의도지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전용광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2) 청소년전용광장 여의도·잠실지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경인지역의 사회복지(사업)학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운동기구대여

1) 운동기구대여는 청소년전용광장 여의도·잠실지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용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상설운영하고 있다.

2) 대여되고 있는 운동기구는 각종 구기종목의 공과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배드민턴, 줄넘기, 원반 등이다.

5. 특별사업

1) 청소년음악제: 여의도지구에서 봄과 가을에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부와 각 음악대학의 연주단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클래식 또는 세미클라식 등을 연주한다.

2) 어린이날 축제: 여의도·잠실지구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 육아원 시설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자랑대회, 미니올림픽대회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3) 청소년 체전: 잠실지구를 이용하는 이용 청소년과 육아원 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2인 축구대회, 피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을 실시한다.

6. 홍보

여의도·잠실지구에서는 이용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전용광장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행사 팸플렛, 소식지, 기념팸지, 기념품을 제작·발간한다.

III. 이용청소년의 특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기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에 모든 것을 전념하기 때문에 대체로 불만을 억제하고 체념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 여가를 명랑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보낼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청소년전용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의도와 잠실지구를 이용하는 남자 청소년의 이용율(63.4%)은 여자 청소년 이용율(3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교급 또는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여의도지구는 중학생의 이용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잠실지구의 경우는 국민학생의 이용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또는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약 5%로 나타났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계층은 학생청소년이 전체의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청소년들의 계층귀속의식을 보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청소년의 72.9%가 중산층이라고 한다. 여의도지구(56.1%)와 잠실지구(57.7%) 모두 중의 상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의 하로 여의도지구는 17.8%, 잠실지구는 13.7%로서 대부분의 이용청소년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청소년을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기타 서울지역(87.0%)이 가장 많았으며 소속행정구는 4.5%, 경인지역은 3.5% 순으로 나타났고 잠실지구는 소속행정구의 청소년 이용이 가장 많아 77.0%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서울지역은 12.9%, 경인지역은 4.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여의도지구는 서울의 여러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잠실의 경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잠실지구는 한강시민공원이 지역사회의 여가시설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여의도지구는 교통이 편리하여 여가시설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청소년들의 용돈규모를 보면 월평균 29.9천원 정도이다. 1만원이하의 용돈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2만원대(23.6%), 2-3만원대(1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용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청소년 중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높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적게 받는 학생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1989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4년여 지나면서 몇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고등학생 이용청소년이 75.3%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국민학생과 중학생 이용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생산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4.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로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반드시 절대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청소년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초기에는 청소년 전용광장이 소속해 있는 행정구 이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소속행정구로 38.6%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 순서는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실지구의 경우는 소속행정구 이용청소년이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서울지역 행정구 거주자는 12.9%로 한강시민공원이 지역사회의 휴식장소로 활용이 잘 되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이용청소년들의 용돈규모는 초기조사나 이번 조사에서 모두 1만원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시민공원은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IV. 한강시민공원의 청소년 이용실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이미지와 이용동기, 이용시간, 동행인,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이용청소년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강시민공원의 이미지

한강시민공원이 개발된 초기에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교의 교사들은 자녀 또는 학생들에게 이용을 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휴식공간으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휴식공간으로 적당한 곳(5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스포츠시설 이용장소(11.9%)이며 놀이장소(11.4%), 비행지역(10.1%), 사색장소(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구별, 분기별로 볼 때 대체로 한강시민공원이 휴식공간으로서 적당한 곳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공원이 전전한 놀이장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 이용청소년들과 여의도지구의 응답에서는 비행지역(14.4%)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자리잡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용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사들이 한강시민공원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보았는데 응답자 74.0%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다음은 이용을 권장한다(14.4%)이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학교 교사 중 22.3%는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입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90년 조사에서는 교사 중 약 3할 정도 시민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동기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이용동기의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개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한강시민공원

을 이용하는 동기를 보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3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운동시설의 이용(28.0%), 사색(10.1%), 주말놀이마당 참여(6.3%), 레크레이션 활동(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주말놀이마당에 참여하고자 시민공원을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나 되어 지난 4년여동안 주말놀이마당에 대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별로 보면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잠실지구의 경우는 운동시설의 이용이 4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해 보면 소속행정구에 속한 이용청소년의 경우는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49.5%)가 가장 많았고 기타 서울지역(43.5%)과 경인지역(29.2%)에 살고 있는 이용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들을 교급별 및 직업별로 보면, 국민학생들의 경우 운동시설의 이용(43.4%)이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색을 하기 위해서(33.3%)가 가장 많았다.

199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똑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청소년들은 사색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서 운동시설이용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과 관련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이용빈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민공원 이용횟수와 이용하는 시간대, 이용하는 요일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용청소년들은 한강시민공원을 평균 47.2일에 한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50.8일에 한번, 잠실지구의 경우는 41.9일에 한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실지구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20.6일 정도 이용횟수가 빨라졌으며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20.4일, 잠실지구의 경우는 17.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의 좋지 못한 한강시민공원의 이미지에서 점차 이용가능한 곳이라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여가장소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의 이용빈도를 지구별로 보면 여의도지구(30.4%)나 잠실지구(36.3%) 모두 일주일에 한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여의도지구의 경우 1-7일에 한번 이용하는 경우가 약 39.3%로 잠실지구의 57.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잠실지구는 이용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시민공원을 이용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여 보았는데 여가시간이 많은 국민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토요일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구별로 보면, 여의도지구는 토요일(35.4%) 이용비율이 가장 높고 잠실지구는 주중 2회 이상 이용이 42.3%로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7-8월에는 일요일 이용(32.0%)이 가장 많았고 9-11월에는 토요일 이용(36.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방학중에는 일요일, 학기중에는 토요일에 주말놀이마당과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를 보면 오전과 오후(30.3%) 이용과 오후만 이용(30.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후와 저녁(19.7%)이며 불규칙적으로 이용(12.3%), 오전만 이용(3.2%), 새벽(1.8%)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동행인

이용청소년들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동성친구(59.9%)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함께 이용하는 동행인들은 이성친구(12.7%)이며 나머지는 가족(12.0%), 단체로(7.5%), 혼자서(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청소년들은 평균 5.1명의 동행인들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자는 5.2명, 여자는 5.1명 정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 보면 여의도지구는 평균 5.4명, 잠실지구는 평균 4.8명으로 여의도지구가 동행인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조사와 동행인을 비교해 보면 평균 0.8명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색보다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지구는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들이 동행인의 7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이 남녀 구별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잠실지구는 여의도지구와 달리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이용에 따른 문제점

한강시민공원의 시설이 청소년 놀이에 적합한가를 질문하여 보았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9.6%에 불과하고 적합하지 않다(27.6%), 모르겠다(40.1%)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67.7%나 되어 놀이시설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은 편의시설의 부족(15.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양호시설의 부족(13.0%)과 놀이시설의 부족(13.0%)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휴식공간의 부족(12.8%), 매점·판매시설의 부족(11.7%), 탈의장·샤워장시설의 부족(9.3%), 운동시설의 부족(9.1%), 관리인의 부족(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청소년들은 질문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불편한 점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는 양호시설의 부족을, 여자는 휴식공간의 부족을 이용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에 비해서 운동 등 과격한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손상의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한강시민공원내에 시설물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구별로 구분해 보면 여의도지구(15.2%)와 잠실지구(16.1%) 모두 편의시설의 부족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여의도의 경우 휴식공간의 부족(14.4%)을, 잠실의 경우는 양호시설의 부족(15.7%)을 불편한 점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여

의도지구가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며 잠실지구는 이용청소년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공원을 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험과 그 대상에 대해 질문하여 보았더니 남녀 모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없다가 48.4%와 52.6%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어 시민공원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를 보면 불량청소년이 가장 많았는데 남자가 35.7%, 여자가 31.6%를 지적하고 있어 이용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전용광장에서는 불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청원경찰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순회지도가 요청된다. 또한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파울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차량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7.5%)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강시민공원 내에서 자동차들의 감속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V. 이용청소년의 욕구

1. 이용청소년의 상담욕구

상담은 청소년들에게 성취동기유발, 자아성장, 심성개발, 창조력 개발, 자율훈련, 학습능력 증진과 같은 잠재능력의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해 예방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문제를 전문상담원과 상담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28.5%에 지나지 않고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68.6%나 되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 지역별, 직업별,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상담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고민문제를 친구에게 상담(53.4%)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부모님(9.9%), 형제(3.8%), 선생님(1.8%)의 순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할 대상이 없는 청소년이 2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상담요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알 수 있었다.

2. 이용청소년의 고민문제

한강시민공원 이용청소년은 성적문제(22.6%)를 가장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진로문제(15.2%)이고 나머지는 대인관계문제(4.2%), 가치관문제(2.6%), 성문제(1.4%) 경제력문제(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문제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성적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고민문제를 지구별, 가족형태별, 생활수준별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을 1989년, 1990년과 비교해 보면 1989년에는 진로문제가 가장 큰 고민문제(32.7%)이었고 성적문제(18.2%)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었

다. 1990년은 성적문제(25.1%), 진로문제(22.1%)의 순으로서 이번 조사와 같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적문제와 진로문제는 여전히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용청소년의 희망프로그램

1)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다른 청소년들과 가장 어울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청소년음악제(25.2%)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말놀이마당(23.1%), 회원취미교실(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지구는 청소년음악제(31.4%), 잠실은 주말놀이마당(27.0%)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어울리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여의도지구는 지금까지 6회의 걸친 청소년음악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잠실지구는 주말마다 실시되고 있는 주말놀이마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게 되면 남자 청소년은 주말놀이마당을 가장 함께 하고 싶어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청소년음악제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연령이 낮을수록 주말놀이마당을,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음악제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시 성별, 연령별 선호도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함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23.4%나 되는 것으로 보아 좀더 이용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2) 희망하는 음악프로그램

이용청소년들은 대중가요(52.9%)를 가장 좋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세미클라식(13.1%), 외국팝송(9.9%), 전통클라식(7.5%)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은 즉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음악을 선호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매우 풍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전한 음악을 멀리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전용광장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해 세미클라식과 클래식으로 구성된 청소년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대중가요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지나치게 대중가요에 휩쓸리지 않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가요의 선정과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미클라식,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 등의 선정으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희망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운동은 농구(13.3%)이며 그 다음은 배드민턴(12.8%)과 수영(12.8%)이고 나머지는 야구(12.5%), 축구(12.2%), 테니스(5.6%), 배구(4.2%), 마라톤(3.2%), 족구(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지구는 배드민턴(17.0%)을 가장 좋아하고, 잠실지구는 농구(16.5%)와 야구(16.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는 현재 여의도와 잠실지구의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

자는 축구(17.5%), 여자는 배드민턴(25.1%)을 가장 좋아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로 보면 7-8월에는 수영(23.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9-11월의 경우는 축구(15.5%)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인 2-13세는 야구(17.6%), 14-16세는 배드민턴(18.0%), 17-19세는 농구(17.6%), 20-26세는 축구(18.6%)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스포츠 기구대여시 기구 준비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성세대에 대한 태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민공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여 보았는데 49.7%가 그저그렇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나쁘다(33.8%)이며 나머지는 좋다(15.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청소년들은 한강시민공원에서 성인 놀이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 조성으로 기성세대의 놀이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50.5%)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응답 비율(77.6%)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용청소년들은 한강시민공원 청소년전용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가 기성세대에게 대부분 건전하게 보여질 것이다(80.0%)라고 보고 있어 이용청소년 자신들의 놀이문화와 청소년전용광장의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용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원봉사자는 주말놀이마당과 같은 각종 공연 등 행사와 순회상담, 취미교실의 지도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의 구성은 대학생(58.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부(12.5%), 지역주민(12.3%), 종교인(3.4%)의 순이다. 대학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형 또는 누나와 같아 주부 또는 종교인 보다는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지금까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이미지는 휴식공간으로 적당한 곳(59.0%), 스포츠시설 이용장소(11.9%), 놀이장소(11.4%), 비행지역(10.1%), 사색장소(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동기를 보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3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운동시설의 이용(28.0%), 사색(10.1%), 주말놀이마당 참여(6.3%), 레크레이션 활동(5.0%)의 순이다.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잠실지구의 경우는 운동시설의 이용이 46.8%로 가장 높았다.

셋째, 이용청소년들의 한강시민공원 이용빈도를 보면 평균 47.2일에 한번 이용하며, 여의도지구의 경우는 50.8일에 한번, 잠실지구의

경우는 41.9일에 한번 이용하며 여의도지구(30.4%)나 잠실지구(36.3%) 모두 일주일에 한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청소년들은 토요일에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를 보면 오전과 오후(30.3%) 이용과 오후만 이용(30.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후와 저녁(19.7%)이며 불규칙적으로 이용(12.3%), 오전만 이용(3.2%), 새벽(1.8%)의 순이다.

다섯째, 이용청소년들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동성친구(59.9%)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12.7%), 가족(12.0%), 단체(7.5%), 혼자(3.4%)의 순이다. 이용청소년들은 평균 5.1명의 동행인들과 이용하고 있다.

여섯째,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은 편의시설의 부족(15.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양호시설의 부족(13.0%), 놀이시설의 부족(13.0%)이며 나머지는 휴식공간의 부족(12.8%), 매점·판매시설의 부족(11.7%), 탈의장·샤워장시설의 부족(9.3%), 운동시설의 부족(9.1%), 관리인의 부족(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용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고민문제를 친구(53.4%)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으며 다음은 부모님(9.9%), 형제(3.8%), 선생님(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할 대상이 없는 청소년도 2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청소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적문제(22.6%)이며 다음은 진로문제(15.2%)이고 나머지는 대인관계문제(4.2%), 가치관문제(2.6%), 성문제(1.4%) 경제력문제(1.1%)의 순이다.

아홉째,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 다른 청소년들과 가장 어울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청소년음악제(25.2%)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말놀이마당(23.1%), 회원취미교실(19.9%)이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대중가요(52.9%)이며 그 다음은 세미클라식(13.1%), 외국팝송(9.9%), 전통클라식(7.5%)의 순이다. 또한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13.3%)이며 그 다음은 배드민턴(12.8%)과 수영(12.8%)이고 나머지는 야구(12.5%), 축구(12.2%), 테니스(5.6%), 배구(4.2%), 마라톤(3.2%), 족구(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번째,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49.7%가 그저그렇다(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나쁘다(33.8%)이며 나머지는 좋다(15.5%)로 나타났다.

열한번째, 이용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대학생(58.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부(12.5%), 지역주민(12.3%), 종교인(3.4%)의 순이다.

이상의 이용청소년의 이용실태, 욕구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한강시민공원 청소년전용광장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강시민공원 이용실태에 의하면 여의도지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고 있고 동행인은 5명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의도지구에서는 소집단 중심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용청소년들은 음악제를 대단히 선호하고 있는데 대규모 청중을 필요로 하는 음악제 뿐만 아니라 자주 개최할 수 있는 소규모 음악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잠실지구에서는 운동시설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계획시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활동이 많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축마라톤, 농구시합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소규모의 체육대회를 자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용청소년들은 성적과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상담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여러번의 만남을 통해 상담원과 청소년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한강시민공원의 특성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진로문제 성적문제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용청소년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접기법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면접을 통해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상담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청소년전용광장에서는 전문상담원 1명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담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나 상담기관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현재 인원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전용광장에서는 운동기구 무료 대여와 스포츠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기구 대여는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스포츠 취미교실의 경우는 한정된 인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스포츠 취미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중심으로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의 체육학과 또는 체육단체의 협조를 얻어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간단한 교육과 함께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기구의 파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 운동기구

의 확보와 대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직능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전용광장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넷째,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이 학생청소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업무는 예산의 투입에 따른 효과성이 현상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은 관청의 행정집행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설명하기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업무 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청소년전용광장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여 또는

참관을 한다면 청소년전용광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용광장 지도자들은 관계자들의 참관을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전용광장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4년여 지나는 동안 주말놀이마당에 참여하고자 시민공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청소년중 58.2%는 전용광장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위탁체별로 자체적인 홍보에만 주력하였는데 이제는 전용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협력하여 홍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매스컴을 이용한다든지 정부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자 또는 홍보지에 단체로 소개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